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A]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A]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

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26.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 ③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2021 수능 [26-30]

28.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 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ㄱ	ㄴ
본계약상 급부	ㄷ	식사 제공

- | | ㄱ | ㄴ | ㄷ |
|---|----------|-------------|----------|
| ① |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대금 지급 |
| ② |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제공 |
| ③ | 급식 계약 승낙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④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⑤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대금 지급 |

29.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② ㉡ : 올해 생일에는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 ③ ㉢ :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가 보았다.
- ④ ㉣ :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물어 보았다.
- ⑤ ㉤ : 바닷가의 찬바람을 씻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채권 → 특정 행위를 요구
 특정 행위를 급부 / 의무를 채무
 급부를 이행 → 채무는 소멸

첫 문장부터 바로 채권의 설명이 제시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 바로 넘어가도 되지만, 처음 알게 된 정보라면 채권과 특정 행위 요구를 **설명관계**로 연결하여 독해합니다.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했으니, 지금부터 특정 행위가 나오면 급부로, 급부가 나오면 특정 행위로 **치환하여**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행위와 급부는 동일 계열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무와 채무를 **동일 계열**로 묶어야 하고, 이때 채권과 채무가 대립되는 정보임을 파악하여 둘을 **반대 계열**로 처리하면 좋습니다.

급부, 즉 특정 행위를 이행하면 채무, 즉 의무는 소멸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었다면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현장에서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그 외의 내용’이라는 정보에 대해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서술된 용어의 설명관계만 파악하고, 뒤에서 ‘그 외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준다면 그때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와도 충분합니다. **선별적**으로 독해한다면 앞쪽 정보보다 마지막 문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민법상의 권리 →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
 계약 → 당사자의 합의
 계약이 성립 → 효력이 인정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 → ‘예약’

첫 번째 문장의 ‘민법상의 권리’를 보고, 무엇이 떠오르나요? 앞 문단에서 읽었던 채권과 이 정보를 **연결**할 수 있나요? 민법상의 권리는 대부분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럼 계약을 하지 않아도 민법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까? 있다면 나중에 지문에서 나오려나?’** 하는 생

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데, 뒤에서 바로 계약의 정의가 나옵니다. ‘계약’과 ‘당사자의 합의’, ‘당사자의 합의’와 ‘효력이 인정’을 각각 **설명관계**와 **선후관계**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효력이 왜 인정되나요? 바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이 성립하였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인과성을 바탕으로 한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2개의 케이스가 제시됩니다. 당장 필요한 경우와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 이렇게 두 케이스가 제시되는데, 둘 중 어느 것이 더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까요? 현장에서 이를 파악하고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장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보다 미래 케이스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다면, 미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방법이 바로 예약입니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X : 일상에서
 O : 법적인 관점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 → 예약 X
 법적 →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 →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

일상에서의 예약과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독해한 내용을 떠올린다면, 당연히 지문에서는 법적인 관점에 더 **무게**를 둘 것입니다. 여기서도 **정보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문에 표시를 해본다면, ‘일상에서’에 과감하게 X표시 하고, ‘법적인’에 O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승차권 예약은 법적인 관점에서는 예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적 예약은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법적으로’와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을 **설명관계**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아직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뭘 합의한거야?’**라는 물음을 던지셔야 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바로 제시됩니다. 본계약을 성립이 당사자들끼리 설정한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환**될 수 있으니, **설명관계**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약’과 ‘본계약’을 구분하여 독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둘 다 계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사례가 나온다면 반드시 둘 중 하나와 **연결**해야 합니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1.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급부 내용 →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
본계약 체결을 요청 → 응할 의무

예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나왔으니,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이 서술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문장을 읽자마자, ‘유형을 결정하는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일까? 케이스 두 개 나올 거니까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무게를 두어 독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존재합니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채권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직접 설명관계로 연결했던 정보를 확인하고 각인해야 합니다. 급부 내용은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입니다. 예약의 정의를 다시 떠올려본다면, 예약은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이기에 예약에서 본계약 성립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본계약 체결 요청’과 ‘응할 의무’는 선후관계로 연결되는 정보입니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 한다.

2.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권리자 →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
예약 완결권 → 곧바로 본계약 →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

둘째 유형은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이거 당연히 앞에 나왔던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랑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과 ‘예약 완결권’은 반대계열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두 정보가 공통점 하나 없이 모든 면

에서 다 다른 것은 아니기에, 반대계열로 지금부터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유형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바로 본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문장 읽고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혹은, 이 문장 보자마자 ‘아까 첫째 유형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본계약 체결 요청’과 ‘응할 의무’를 선후관계로 처리한 기억이 나시나요?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의 차이점이 바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문제를 보고 다시 돌아올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 차이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고,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합니다. ‘예약 완결권’,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 ‘채권이 발생’을 선후관계로 모두 연결하면 됩니다. 계단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이행되지 않는 문제

유형에 따라 → 양상이 다르다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충분히 생길 수 있겠죠? 이때에도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왜 양상이 달라질까요? 바로 예약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형에 따라’와 ‘양상이 다르다’를 선후관계로 연결합니다. 앞 문단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문단을 독해할 때에도 동일 계열과 반대 계열을 항상 생각하며 정보를 수용해야 합니다.

채권자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원인은 채무자일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과 ‘돈으로 물어야 하는’을 설명관계로 연결합니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타인이 고의나 과실 →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 & 위법성이 인정
→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
누구라도 손해 배상 →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

‘타인이’ 이 정보 보자마자, **‘아까는 채무자 아니었나? 그리고 보니까 앞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유형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서 둘째 유형이 서술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 놓인 채무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 계약 관계가 아닌 제3자, 즉 타인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히 다른 유형이고, 그러니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타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 파악하셨나요? 첫째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고, 둘째는 ‘위법성이 인정’입니다. 이 두 정보는 **병렬관계**로 연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돈으로 손해를 배상하는데,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를 배상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진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아 두 유형 모두 돈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거니까 한 명만 손해배상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 현장에서 하셔야 합니다.

26.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 ③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문장>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풀이>

계약상의 채권은 민법상의 권리와 치환될 수 있는, 동일 계열의 정보입니다. 채권이 무엇이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는 채권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채권에 대한 설명이 나온 지문 속 **위치**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은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 즉 권리는 계약이 성립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죠. 제시된 근거 문장과 내용일치가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근거 문장>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

<풀이>

②번 선지 역시 지문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 결국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지문의 ‘다른 형태의 권리’는 선지의 ‘그 외의 내용’과 **치환**될 수 있는, **동일 계열** 정보입니다.

③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문장>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

<풀이>

예약상 권리자? 선지의 이 정보를 보자마자 지문을 독해할 때 2가지 케이스로 나누었던 **기억**이 곧바로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약상 권리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양상이 두 가지 유형이라고 지문에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예약상 권리가 갖는 권리는 상대방이 본계약 성립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채권입니다. 권리자가 본계약 성립을 요청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승낙할 의무를 지는거죠. 둘째는 예약 완결권 행사로, 행사하기만 하면 바로 본계약이 성립합니다. 첫째 케이스와 둘째 케이스 모두, 결국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근거 문장>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

<풀이>

④번 선지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제시된 근거 문장과 똑 같습니다. ④번 선지가 맞는 말로 당연하게 처리되는 이유는 쉬운 개념,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어서 아니라 지문 속 근거 문장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에이 당연히 이거 맞는 말 아니야?'**라는 생각이 물론 들 수 있지만, 항상 근거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근거 문장>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풀이>

불법행위 책임은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 그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두 사람으로 구성된 계약 관계에서는 급부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지문의 표현을 빌리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책임은 꼭 계약의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생기나요? 이 선지를 볼 때 무언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제대로 독해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타인이' 이 정보 **기억**하시나요? 타인이 계약 관계에 끼어들어 무언가 잘못을 했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성립한다면, 그 사람 또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는 것이죠.

<실전 현장에서>

26번 문제가 현장에서 어렵게 느껴지거나 헛갈렸다면, 그것은 선지 하나하나의 정오를 너무 엄밀하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려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문제, 그것도 간단한 문제이니 최대한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조금 함 담긴 생각과, 이런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 담긴 생각이 동시에 작용하여 오히려 지문 속 내용이 정립이 되지 않고 사고가 흐트러지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한 번 속 스캔하겠다는 생각으로 5개의 선지를 모두 밀어붙이세요.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싶으면 바로 다음 번호로 넘기는 것이죠. 사실 마지막 문단만 독해했어도, 그다지 밀도 높은 독해를 하지 않았어도 5번 선지를 보면 반드시 걸리는 부분이 생겨야 합니다. '정말 국한되나?'라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 문단을 보면, '타인', '그에게도'라는 표현이 보일 겁니다. 현장에서는 굳이 앞에 배치된 4개의 선지를 엄밀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5번 선지가 100%이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고르고 넘어가도 됩니다.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선지 분리>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i.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나요?
- ii.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급부에 해당하나요?

<근거 문장>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풀이>

기차 탑승이 채권에 해당할까요? 채권은 무엇인가요? 여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문에 따르면, 채권은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특정 행위란 기차 탑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에 탑승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면, 기차 탑승이 채권에 해당할 수 있겠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즉 근거 문장에 따르면, 급부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특정 행위입니다. 승차권을 구입한 사람이, 즉 기차에 탈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채권자가 갖는 또 다른 채무라고 봐야 합니다.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근거 문장>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풀이>

②번 선지는 그냥 100% 틀린 말입니다.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이 무엇인가요? 채권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승차권을 구입했다면 기차에 탈 권리가 생깁니다.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차권을 구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차에 탑승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와 의무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기차를 타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②번 선지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선지 분리>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i.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인가요?
- ii.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인가요?

<풀이>

③번 선지의 경우 나머지 선지들처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근거 문장은 없습니다. 즉, 지문 독해를 통해 일상에서 부르는 예약의 의미를 파악하고, 채권의 의미를 이해해야 처리할 수 있는 선지인 겁니다. 분리 문장 i 부터 보면,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창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리 실행 시기, 즉 기차에 실제로 탑승하는 그 시기가 계약 성립 직후가 아닌 조금 뒤인 것이죠. 그래서 분리 문장 ii도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 무엇인가요? 기차에 탑승할 권리입니다. 그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죠.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근거 문장>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

<풀이>

승차권 구입은 엄연한 계약입니다. 계약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계약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열린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지문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가 발생하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 승차권 구입이 예약에 해당하는 계약이 아닌 것이죠. 예약이 아닌 것이지, 계약 자체는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계약은 예약보다 더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근거 문장>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풀이>

안타깝게도 ⑤은 계약은 맞지만,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즉,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일상에서의 예약인 것이죠. 법적 예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차 승차권 구입 계약에는 나중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설명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⑤이 법적 예약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 선지는 그냥 100% 틀린 말이 됩니다.

<실전 현장에서>

27번은 지문의 처음과 끝을 넘나들며 근거 문장을 찾고 그 근거를 토대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했고, 지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상에서의 예약과 법적 예약을 구분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차근차근 ⑤을 다시 여러 번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곱씹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막히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하면 이 문제의 정답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문학 문제의 선지를 처리하듯,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 '이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방식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28.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 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ㄱ	ㄴ
본계약상 급부	ㄷ	식사 제공

- | | | | |
|------------|-------------|-------------|----------|
| | ㄱ | ㄴ | ㄷ |
| ①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없음 | 급식 대금 지급 |
| ②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없음 | 급식 제공 |
| ③ 급식 계약 승낙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없음 | 급식 제공 |
| ④ 없음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⑤ 없음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대금 지급 |

<근거 문장>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

<풀이>

이 문제의 표는 세로로 읽어야 합니다. ㄱ, ㄴ, ㄷ을 찾아야 하지만 차례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ㄱ, ㄷ, ㄴ 순서가 되는 것이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첫째 유형이었고,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은 둘째 유형이었습니다. 첫째 유형 먼저, 즉 ㄱ과 ㄷ을 먼저 찾고, 둘째 유형으로 가서 ㄴ을 찾겠습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첫째 유형에서 예약상 급부는 무엇인가요? 그 전에, 급부가 뭐죠? 급부는 요구할 수 있는 특정 행위입니다. [A]에 제시된 예에서 업체가 요구할 수 있는 특정 행위, 즉 급부는 무엇인가요? 바로 회사가 급식 계약을 승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 즉 본계약상의 급부는 업체가 회사에게 요구하는 특정 행위이니, 곧 회사가 업체에게 급식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발문을 잘 살펴보세요. 예약상 권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입니다. 예시에서 회사는 예약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급부를 찾으면 이 문제풀이는 이미 망한 것입니다. 이제 둘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계약상 급부가 식사 제공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나요? 둘째 유형에서 예약상 권리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예약하는 사람입니다. 예약상 급부는 없습니다. 둘째 유형의 경우, 예약상 권리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만 표시해도 바로 본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예약 단계에서 식당이 따로 예약한 사람, 즉 예약상 권리자에게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전 현장에서>

현장에서 28번의 표를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표를 좀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무언가 익숙한, 낯익은 정보나 표현을 찾아 직접 표시하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표의 경우,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이 두 표현을 보고 자신이 직접 케이스를 나눴던 [A]의 부분이 떠오를 겁니다. 이해가 되는 라인으로 축을 하나 정했다면, 그 축에 맞게 세로로 표를 읽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ㄱ, ㄴ, ㄷ보다 ㄱ, ㄷ, ㄴ의 순서가 압도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축을 정한 이후부터는 차근차근 사례와 선지를 대응시키며 근거 문장을 찾는 싸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9. 뒷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선지 분리>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i. 을의 과실이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나요?
- ii. 을의 과실이 있다면,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생기나요?

<근거 문장>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

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풀이>

①번 선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을은 당연히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을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생깁니다. <보기>에 따르면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지문에 따르면 제 3자, 즉 타인도 얼마든지 계약상 권리자에게 손해 배상을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선지 분리>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i. 을의 고의가 있다면, 을과 병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나요?
- ii.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나요?

<근거 문장>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

<풀이>

을의 고의가 있다면, 일단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시된 근거 문장을 통해서도

이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병도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질까요? <보기>에 따르면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병도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의 손해 배상 유형은 채무 불이행이 아닌 불법 행위입니다. 여하튼, 을과 병 모두 갑에게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을과 병의 배상 내용이 동일하기에 어느 한쪽만 배상을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의 의무는 사라집니다. 두 명 다 배상을 해주면, 갑 입장에서는 손해 본 것 이상의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 이건 부당한데? 그러니까 을이 배상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져야지!’** 이렇게 나온 판단이 절대 아닙니다. 지문 속 근거 문장을 찾은 것입니다.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선지 분리>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i.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으면, 을과 병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나요?
- ii. 을과 병의 급부 내용은 동일한가요?

<근거 문장>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

<풀이>

③번 선지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을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손해 배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잘못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문에 따르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병은 을의 잘못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병은 이미 타인으로서 갑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고의로 하였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었

기 때문이죠. 을과 병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두 명의 급부 내용은 지문 속 근거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합니다.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선지 분리>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 을과 병은 모두 /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i.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으면,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나요?
- ii.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으면, 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나요?

<근거 문장>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

<풀이>

④번 선지는 그냥 100% 틀린 말입니다. 분리 문장 ii가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병은 타인, 즉 제 3자입니다. 타인이 어떻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병이 갑에게 무언가를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 배상이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병이 갑에게 이행해야 할 채무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무언가를 답했다면 이는 지문을 제대로 독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병은 갑에게 이행해야 할 채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병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고의로 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채무가 생긴 것이죠. 을과 병 모두 갑에게 책임을 지지만, 그 유형이 다릅니다. 계약 당사자인 을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고, 타인 병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지 분리>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 을과 달리 병에게는 /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i.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나요?
- ii.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병은 갑에게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근거 문장>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

<풀이>

⑤번 선지는 그래도 ‘널럴한’ 선지입니다. ⑤번 선지로 오기까지 정말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표현을요. 을은 증명했습니다. 당연히 을은 갑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은 다릅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무엇보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갑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의 내용, 즉 급부의 내용은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